

삶의 이야기 '생활툰' ... " '어라' 는 자신 투영된 화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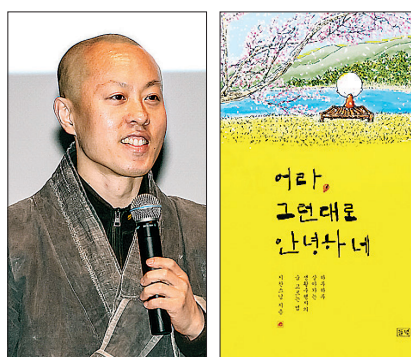
카툰집 <어라, 그러대로...> 발간한 지찬 스님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스님이 만화를 그린다... 하지만, 최근 스님들이 SNS를 통해 불교를 만화로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지찬 스님은 요즘 가장 핫한 불교 만화가다.

지찬 스님은 2012년 블로그를 통해 만화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SNS가 보편화되면서 스님의 웹툰은 큰 인기를 얻는다. 특히 하체보다 더 커 보이는 상체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2등신, 만 가지 표정을 넉넉히 담아내고도 남는 크고 둥근 머리, 늘 좌충우돌하지만 '이 뭘고?' 자세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동자승 같은 승려 '어라 스님'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실제 어라 스님은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으로도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어라 스님은 소위 '오너캐(오너와 캐릭터 합성어)'다. 작가 자신이 그대로 투영된



불교 만화가 지찬 스님(사진 왼쪽)과 스님이 최근 발간한 카툰집 <어라, 그러대로 안녕하네>

이등신 캐릭터 어라 스님의 좌충우돌 '생활·수행기' 담아 사이다 같은 해학·유머 감점

"어라는 내 분신, 호기심의 원천" 일상 관찰하면 소재 '무궁무진'

캐릭터인 어라 스님은 지찬 스님에게는 일종의 화두다.

"어라"는 제 말버릇이기도 하고, 궁극함과 호기심을 표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니다. '이뭘고'와 같은 화두를 만화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이뭘고'를 좀 쉽게 이야기 하면 '어라'입니다. '어라'는 스스로 묻고 성찰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이자 캐릭터라는 일종의 만화적 장치이죠.

어라 스님은 일종의 '생활툰'이다. 지찬 스님은 삶의 이야기들을 어라 스님을 통해 풀어내간다. 어라 스님의 가장 큰 매력은 이야기에 있다. 다분히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가볍지 않다. 불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것이 지찬 스님의 카툰의 큰 매력이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사이를 균형감 있게 절묘하게 이어나는 것은 작가 특유의 해학과 유머에 있다.

남녀노소, 종교에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박한 이야기들이 미소를 짓게 한다. 아가자기한 인물들과 미소를 짓게 하는 유머와 재치로 찾아낸 짝막한 이야기에겐 수행자의 세상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소재는 주로 주변에 있습니다. 지인의 이야기, 제 경험담을 평소 잘 관찰하고, 메모해 소재로 사용하죠. 그리고 최대한 유쾌하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각색을 합니다. 재미있으면 서도 가볍지 않게 작품을 그리려고 노력

합니다." 스님은 최근 자신이 4년 동안 블로그를 통해 연재한 이야기를 선별해 카툰집 <어라, 그러대로 안녕하네>로 묶었다. 웹에서 만날 수 있던 어라 스님을 출판으로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스님이 SNS를 통해 만화를 그리니까 대중들이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불교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행과 포교의 일환으로 봐주신다면 더 감사하죠."

현재 지찬 스님은 방송에서도 종종 무진 활약 중이다. 2014년에는 불교카툰신문 '만만(만만)한 뉴스'를 창간하기도 했다. 최근 관심을 갖는 것은 '만만한 뉴스'의 변화이다. 스님은 참여작가들과 논의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 시스템을 변화시킬 복안을 갖고 있다.

"만만한 뉴스' 참여작가들도 대부분 본업이 있으니까 꾸준히 연재물을 올리기에겐 무리가 있죠. 그래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라 스님' 시리즈나 에세이도 계획 중입니다. 무엇이든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톨릭·도교 年畵 판화 '한자리에'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8월 21일까지 소장품 특별전

중국 년화(年畵) 판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원주 치악산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제7회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 특별전으로 중국 년화 판화 소장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는 2000여 점의 중국 년화 판화 중 업선된 100점이 공개되며, 작품 중에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중국 기독교 년화 판화도 있다.

전시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천주교 년화 판화인 연옥도 '연령잡고(煉靈誓苦)'(130×66cm)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연령잡고'는 연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영가의 모습을 3단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연령잡고'에는 연옥 중생들이 예수의 보혈을 받는 장면을 청나라 변발을 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애금을 하는 사제와 성도들도 청나라 복장이다.

성모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는 천국의 세계에 들어가는 장면에도 청나라 복장을 한 연령을 천사가 인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중기독교 년화 세계 최초 공개 연옥서 구원하는 메시지 담아 5월 27~28일 국제학술대회도

불교 년화 중 대표적 작품은 '서방극락세계도'이다. 석판화가 중국에 소개된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반야공손을 타고 극락세계에 가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여 점이 남아있지 않는 소수 지역 년화 5점도 전시회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한선학 관장은 "중세에 유행하였던



중국 천주교 년화 판화인 '연령잡고(煉靈誓苦, 130×66cm)' 고판화박물관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중국 년화 판화이다.

서양의 연옥도를 중국화시켜 중국 백성들이 사랑한 연화판화로 제작한 것"이라면서 "천주교가 중국 민중 속으로 뿌리 내리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종교사와 판화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판화박물관은 5월 27~28일 양일 간 '중국 년화'를 주제로 한국제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중국 년화의 최고 권위자인 보송년 중국중앙미술학원 교수를 비롯해 강연문 천진미술학원 교수, 일본의 나가이나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국 년화에 대해 한 관장은 "중국 년화는 중국 문화를 판화로 이미지화해 보여주는 중요한 콘텐츠"라면서 "중국에서 중국 문화의 원형질 중에 하나로 꼽고 있을 정도로 중국과 동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기본 텍스트"라고 강조했다. (033)761-7885 신성민 기자

종교 넘어선 서예가의 유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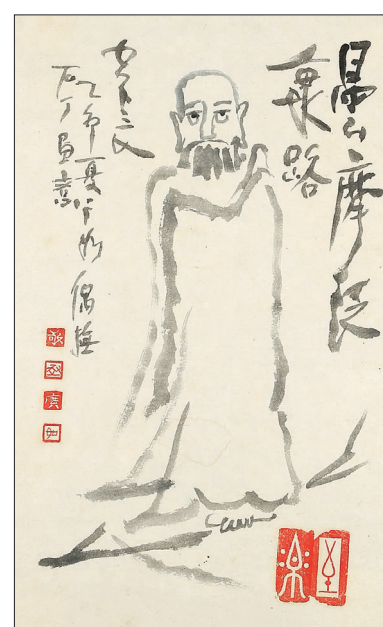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 7월 24일까지 김광업 유묵 전시

한국 근현대 서예가로 잘 알려진 운여 김광업의 유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오는 7월 24일까지 2층 로비에서 '제20회 작은 전시회 - 운여 김광업 소품(小品) 유묵(遺墨)전'을 개최한다.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광업 선생은 서울대 의과대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4후퇴 때 남하한 뒤 부산 최초의 서예학원인 동명서예학원을 개설하고 부산시립 회화당 흥사단 부산분회장을 역임했으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던 중 1976년 미국 LA에서 타계했다.

또한 김광업은 일제 강점기에는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라 광복운동에 참여했다. 기독교 장로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종교에는 구애받지 않았고, 도리어 스님과의 교류가 더욱 돈독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작품을 기증하신 석정 스님은 운여 김광업의 작품을



운여 김광업의 작품 <달마도>

'선(禪)의 미술'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번 전시는 김광업의 작품을 통해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2-1001 신성민 기자

왜? 울금(강황)과 Phytoncide(피톤치드, 편백수)인가!

「대리점 및 소매 점포/사찰탈레품 창업주 모집」 불황을 타개 할 참신한 제품입니다.

울금365는 울금, 황금, 미강으로 구성되어 있어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 음식의 과잉섭취, 각종 공해에 찌는 현대인에게 꼭 권장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울금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을 고려했습니다. 3box 6병(3개월 분) = 89,000원 1box 2병(1개월 분) = 39,000원

• 울금과 강황을 이용한 식품일체(동분야 국내최고 권위자) 피톤치드, 편백수(국내 최대생산라인 확보, 성분타의 추종을 불허함) 약용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다수(특허등록) 당찬하루, 필자보(남자의 팔자), 울금365 등

100% 천연편백수 산림욕장을 실내로!

아토피, 피부미용, 새집증후군, 천연방향제, 의류 및 침구류, 신발장, 화장실 등의 향균,탈취

70ml (휴대용)×1병 = 3,900원 6병×1box = 21,600원 200ml(가정용)×1병 = 8,000원 2병×1box = 15,000원 500ml(대용량)×1병 = 15,600원

오랜 전통과 기술이 축적된 산학협력 및 정부지원 업체입니다.

SanchonHerb NAVER 산촌허브 검색

문의전화 T. 055) 632-2233 F. 055) 635-6500 H. 010-3215-3998 www.sanchonherb.co.kr 농협 351-0633-0485-13 산촌허브(주)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집합니다.

총무원장 무궁당 해봉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말소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집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충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 3칸 겹집 목조건물 : 11,000×6,000×4,800mm ■ 가격: 평당 1,500,000

다그라스 목재기둥 : 180×180×2,700mm 다그라스 대들보 : 180×240mm 원하는 평수가 가능
다그라스 목재도리 : 108×180mm 다그라스 목재기둥 : 100×100mm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목재판대 : 120×18mm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 300×300×300mm

향토휴 ALC블록 내화벽돌 판넬 자유선택

■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림식 평상 : 1,800×1,030×400mm
가격+290,000 → 할인가: 190,000 평상, 운송비 별도
플리프로필렌재기둥 : 110×90×400 도리 : 80×35 중간대 : 80×35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지구산업.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